

민·관·군 힘 모아 폭설 피해 줄였다

고성군·22사단과 공조 제설작업 큰 효과 ... 군장병들 세심한 제설작업에 주민들 '박수'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고성군을 비롯한 영동북부지역에 총 65.4cm의 많은 눈이 내렸지만, 이를 뒤인 16일부터는 언제 눈이 내렸느냐 싶게 대부분의 도로가 정상기능을 회복했다.

일부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지역이 이처럼 큰 피해없이 폭설을 극복한 것은 공무원과 군부대 장병들의 공조 제설작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성군은 주말과 휴일인 12일과 13일에도 공무원 전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16일까지 시급하지 않은 일정 등을 모두 취소하면서 제설장비 54대를 동원해 발빠른 제설작업에 나섰다.

특히 육군 제22보병사단(사단장 소장 조성직)은 11일 제설장비 10대 및 군장병 550여명을 조기 투입해 7번 국도 등 주요 도로 및 마을도로 위주의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또 12일에는 원활한 차량통행과 고립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장병 680명과 제설장비 20대를 지원해 제설작업에 임했다.



“제설작업을 명 받았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고성지역에 65.4cm의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발빠른 제설작업을 펼쳐 폭설 피해를 최소화했다. 박승근 기자

13일에는 2,170명의 군장병과 163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했으며, 14일에는 2,250명의 군장병과 7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해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펼쳤다. 22사단은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과 함께 공현진·도학리 노인정, 까리따스 등 2개 요양원, 각급 초등학교를 비롯해 홀리와 급수리 등 산간오지에도 장병들을 보내 세심한 제설작업으로 조기 안정화에 기여했다.

22사단은 이밖에도 군 헬기를 투입해 고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과 고립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병행해 지역주민들부터 칭송을 받았다. 고성군과 육군 22사단은 체계

적인 공조 제설작업을 통해 이번 폭설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민관군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성 발전을 위해 힘을 모어나가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지역 눈 얼마나 내렸나

10~14일까지 65.4cm 내려

비닐하우스 3동 붕괴 ... 가뭄 여전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고성군을 비롯한 영동북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때 일부 지역의 도로가 막히고 산간오지 주민들이 고립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속초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고성을 비롯한 영동북부지역에 내린 눈의 양은 총 65.4cm를 기록했다. 이는 동해의 134.7cm, 강릉의 108cm보다는 적은 양이다. 날짜별 적설량은 10일 1.8cm, 11일 33cm, 12일 9.4cm, 13일 0cm, 14일 21.1cm다.

속초기상대는 “이번 대설은 상층 5km에 영하 40℃ 가량의 찬 공기가 머물면서 수증기를 포함한 눈구름이 강한 동풍을 타고 동해안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눈으로 고성군을 비롯한 영동북부지역의 가뭄은 다소 해갈됐으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0%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기상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2월14일 강수량은 106.4mm로 평년 기록 177.2mm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고성군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이번 폭설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홀리와 광산리, 천진리에서 각 비닐하우스 1동씩 총 3동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트랙터로 송죽리 도로 1km 제설작업

윤종우 거진읍 변영회장 ... “서민들을 위해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고성지역에 폭설이 내린 초기 제설작업은 주로 7번 국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심도로를 우선 뚫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군도 등 소규모 도로는 제설작업이 다소 늦어졌다. 주민들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윤종우 거진읍 변영회장이 12일 새벽 5시 자신의 트랙터를 직접 몰고 200여명의 종사자들이 통행하는 송죽리 진입도로의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윤 회장은 송죽리 도로가 막혀 해광수산 등 4개 업체의 종사자 200여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2일 새벽 5시부터 약 4시간 가량 제설작업을 펼쳤다.

“업체 종사자들이 새벽에 출근



을 해야 하는데 도로가 막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힘 좀 썼지요.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윤 회장은 눈이 계속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폭

6m의 도로를 무려 1km가량이나 치웠다. 꼬박 4시간이 걸린 작업이었지만, 종사자들이 편하게 출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힘든지도 몰랐다고 한다.

“제가 좋은 일을 했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당국에서 서민들을 위해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방향으로 보도해 주세요.”

윤 회장은 이날 새벽 제설작업을 마친 뒤에도 쉬지 않고 거진 종합고등학교 진입도로와 주차장의 눈을 치운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거진읍 화포리 출신으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거진 토박이’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윤 회장은 변영회 사무실에서 매월 1회씩 정기모임을 갖고 거진과 고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